

121. 변전운영반원에서 발생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성별 남 나이 47세 직종 조선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배OO는 1980년 11월에 입사하여 약 25년 6개월 간 주로 변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5월 경추3/4/5/6/7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 후 MRI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5 요추-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배OO은 현재 설비보전팀의 변전운영반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내 약 50여개의 변전소와 각 변전소간의 연결된 공동구 내의 cable, 조선소내 건조중인 선박에 사용되는 대용량 공급용 이동변대의 설치, 철거, 이동 및 유지 관리, 각 변전소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한다. 과거 근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낮/야간 작업을 1주씩 번갈아가며 했으나 현재는 약 6주에 1주일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1980년 입사 당시 현 질병과 같은 증상은 없었고, 양쪽 무릎 안쪽이 쭈시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고 무릎 통증은 3년 정도 전에 작업으로 인하여 공구와 자재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을 처음 느꼈다고 한다. 작업으로 인하여 피로할 경우 허리가 먼저 아파오며 무릎은 작업으로 인하여 이동 중 공구, 장비, 자재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월 1-2회 정도 발생하였다고 한다. 허리는 중량물 작업 시 통증이 가장 심하고 무릎은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심했다고 한다. 2006년 9월과 10월에 우측과 좌측 무릎 MRI 촬영하여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 배OO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외상에 의한 파열이 중 파열이나 사 파열이 아니라 수평 파열임이 판명되었다.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배OO은

- ①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로 확진되었고
- ② 위 상병은 근로자 진술과 MRI 소견 상 외상과 같은 사고에 의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퇴행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 ③ 과거 2년간 호선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주 작업인 변전업무는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쪼그려 앉기, 무릎 꿇 등등의 자세를 취하는 작업은 많지 않아

근로자 배OO의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